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부모의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Children's Smartphone addiction on Aggression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Parenting Style

박혜선*, 김형모**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Hye-seon Park(sensational-s@nate.com)*, Hyung-mo Kim(hkim66@hanmail.net)**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전국단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고, 둘째,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인과관계 사이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아동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긍정적 측면을 강화 할 수 있는 실천적, 정책적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그 필요성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 Korean Children Youth Panel Study)’의 초등학교 1학년패널의 제4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총 1,686케이스를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SPSS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감독, 애정, 방임이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과 공격성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부모의 양육태도로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아동의 공격성 감소를 위하여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방법 교육과 더불어 올바른 부모의 양육태도를 위한 부모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아동 공격성 | 스마트폰 중독 | 부모의 양육태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aise validity of the result through using national data, to analyze the effect of children's smartphone addiction on aggression and moderating effect of parenting styl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martphone addiction and aggression. The data were obtained from 4th waves of KCYPS(Korean Children Youth Panel Study), and 1,686 4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s who have smartphone were analysed.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execute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rough SPSS 21.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children's smartphone addiction level, the higher children's aggression goes. Second, parents' supervision, affection, neglect have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martphone addiction and aggression which means parenting styles could reduce children's aggression despite serious smartphone addic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ombination of preventive discipline of smartphone addiction and parental education program is needed to reduce children's aggression which is main factor of bullying.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arrangement such as 'shut down' for smartphone addiction prevention.

■ keyword : | Korean Children Youth Panel Study | Smartphone Addiction | Aggression | Parenting Style | Child |

* 본 연구는 2015학년도 경기대학교 대학원 연구원장학생 장학금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접수일자 : 2015년 12월 29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2월 11일

수정일자 : 2016년 01월 25일

교신저자 : 김형모, e-mail : hkim66@hanmail.net

1. 서론

최근 아동의 공격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격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2013)에서 실시한 청소년위기실태조사(초, 중, 고등학생 대상)에 의하면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44.8%로 나타났다[1]. 특히 아동기의 공격성은 비행, 학교폭력, 나아가 성인기의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동의 비행, 범죄, 학교폭력의 예방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성인기의 사회적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함께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지기 이전에는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요인으로 성별, 연령, 성격 등을 포함하는 개인적 요인과 학교생활, 가정환경, 또래관계 등의 사회적 요인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아동의 스마트폰 소지율이 증가한 이후,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스마트폰 중독이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2].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된 바는 없지만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의 정의를 종합하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며 스마트폰이 없을 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2013년 11월에 강북 인터넷 중독예방상담센터에서 청소년 4,9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및 사이버bul링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내 청소년 5명 중 1명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률이 높을수록 학교나 가정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학업성적이 낮으며, 학교폭력의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이 높았다. 특히 고위험군의 가해경험은 14.7%로 일반 사용자군(2.5%)보다 6배나 높았다[3]. 이 외의 선행연구에서도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신성철 외(2013)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청소년들의 공격성의 일정부분이 스마트폰의 과사용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내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였다[4]. 또한 금창민(2013)의 연구에서도 중·고등학생의 중독경향성과 공격성이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5]. 장여옥과 조남익의 연구(2013)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으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고 결국 청소년들의 비행과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6].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의 신체적 공격성을 예측하는 예측력이 높고, 언어적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는 연구결과[7] 외에도 스마트폰 사용이 많을수록, 중독의 정도가 심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2][8][9].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2014)의 조사결과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의 경우 10명 중 6명꼴로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 연령대별 중독위험군이 청소년 29.2%, 성인 11.3%로 청소년의 위험군 비율이 성인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중에서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의 경우 중학생이 29.6%, 고등학생이 24.4%, 초등학생이 23.7%순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조사에서 만 3세에서 9세 유아동의 52.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나이가 올라갈수록 이용시간과 횟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0].

스마트폰이 짧은 기간 내에 빠르게 보급되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에 대한 준비는 부족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나날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2014년부터 스마트폰 중독관정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대폭 상승하고 있어 저연령 대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중독 대책이 필요하다[11]. 또한 청소년기 이후의 범죄가 초등학교 시기에 습득된 공격성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보고되었고[12], 아동의 공격적 행동이 약 10세경 까지 증가하여 가장 높은 공격성을 보인다는 Aber 외의 연구[13][14]와 2013년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이 실시한 학교폭력실태조

사에서 초등학교 4~6학년 시기에 최초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전체의 46.7%로 나타난 것을 볼 때[15]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을 증가시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됨에 있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과 그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관계의 강도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정 변수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비슷하지만 공격성의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중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9][16][17]. 아동에게 있어 가정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아동이 태어나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접촉이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가장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이 가족구성원 중 부모를 통하여 가치관, 성격, 정서 등 삶의 전반에서 사회생활의 기초를 배우고 형성시키기 때문에 부모는 아동을 한 인격체로 성장시키는 가장 근본이 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녀를 기르고, 가르치는 양육과정에서 부모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동을 하게 되며 이를 양육태도라 한다. 이러한 양육태도에는 관심, 애정과 같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동과 함께 과잉보호, 과잉간섭과 같은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측면까지 포함된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권위주의적이고 허용적인 양육태도가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8]와 부모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으로 양육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낮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며[19],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처벌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주리(201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20].

이외에도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연구결과[21]와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22], 부모의 간섭이 적을수록[23] 청소년의 공격성이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부모의 양

육태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본다.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 중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제시하였다[20][22]. 이는 스마트폰 중독이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경로에서 그 영향력을 조절하는 조절변수로서 부모 양육태도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최유미(2013)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스마트폰 과사용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완충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 공격성이 증가하고, 아동의 스마트폰 과 사용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친밀하고 합리적인 부모 양육태도와 과잉보호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과 사용과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공격성을 낮춘다는 결과였다[9].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가 심할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과 공격성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 즉 아동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었더라도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공격성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부모 양육태도가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과 공격성 사이에서 부모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최유미(2013)의 연구가 일부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인과관계 사이에서 부모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고, 아동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긍정적 측면을 강화 할 수 있는 실천적, 정책적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그 필요성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2>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 미치는 영향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II. 조작적정의

1.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최근 중독에 대한 개념은 약물중독을 넘어 행위중독 개념으로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행동이나 조건에 중독된 상태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인터넷중독, 쇼핑중독, 스마트폰 중독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24].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된 바가 없다. 황하성 외(2011)는 스마트폰 중독을 “스마트폰 이용에 몰두하는 시간이 많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25]”로 정의하였고, 강희양 외(2012)에서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몰입으로 인하여 생기는 초조 불안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장애[26]”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의 정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을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며, 스마트폰에 의존하여 스마트폰이 없을 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이시형 외(2003)의 휴대전화 의존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된 문항점수의 합을 스마트폰 중독 수준으로 정의한다.

스마트폰은 컴퓨터의 기능을 하는 휴대전화이다. 스마트폰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점점 더 많은 기능을 할수록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이 높아졌고, 이용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27].

2. 아동의 공격성

심리학에서는 공격성의 사전적 정의로 타인에게 신체적·언어적 행동으로 위해를 가하여 고통과 상처를 주는 행위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신체적·언어적 행동, 방해, 자기통제 부족, 대인관계결함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조봉환·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의 총 합을 응답아동의 공격성으로 보고자 한다.

3.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기르고, 가르칠 때 나타나는 일반적, 보편적 행동이다. 부모 양육태도의 유형구분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나 부모 양육행동의 긍정적 측면뿐 아니라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허묘연(2013)의 유형구분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 방임, 학대를 부모의 양육태도로 보고자 한다[28].

감독은 자녀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애정은 친밀한 태도를 가지고 자녀중심적이며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주는 태도를 말한다. 또한 비밀관성은 훈육의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과잉기대는 자녀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기대를 하는 태도를 말한다. 과잉간섭은 자녀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추도록 강요하며 자녀의 행동을 불안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합리적 설명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와 일관적인 규칙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학대는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며 신체적인 손상을 주는 행위이고, 방임은 아동의 발달에 무관심하고 칭찬이나 처벌을 하지 않아 아동이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28]. 각 하위유형의 수준은 허묘연[28]과 김세원[33]의 아동학대 문항과 허묘연[28]이 제작한 부모양육태도 검사 등을 통하여 측정된 해당 문항점수의 합을 말한다.

4. 통제변수 : 아동의 성별, 성적만족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는 아동의 성

별을 남자는 1, 여자는 2로 코딩하였으며, 아동의 전체 성적만족도를 ‘매우 만족한다’의 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으로 측정하여 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방식에 따라 점수가 높아 질수록 성적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을 독립변수로, 아동의 공격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부모의 양육태도가 조절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방인, 학대, 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아동의 성별과 성적만족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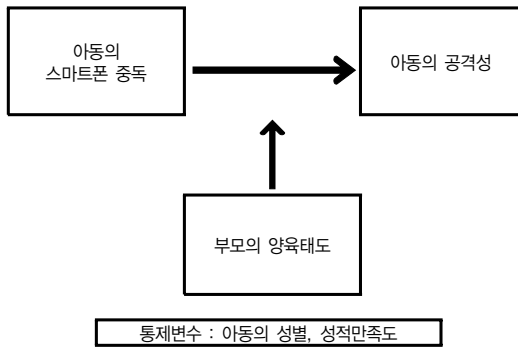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초등학교 1학년 패널의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연구이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09년 4월 기준 전국 학교통계를 표집틀로 하여 전국 16개 시도를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 구분한 후 이들의 지역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총 27개의

집락으로 나누었고, 층화다단계집락표집으로 표집한 2,342명의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제1차년도에 확정된 표본(원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2013년에 실시된 추적조사에서 제1차년도의 원표본 중에서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질병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사례를 제외한 유효표본 2,200명의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패널의 최근 자료인 제4차년도에 해당하는 2,200명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남녀학생 1,686명을 분석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측정도구

3.1 독립변수 :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시형 외(2003)의 청소년 휴대전화 의존 문항을 사용하였으며[29], 설문은 아동이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을 기준으로 10대 10명 중 9명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고[30], 휴대폰을 이용하는 10대의 95%가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조사결과[31]에 따라 휴대전화 의존을 스마트폰 의존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의존과 중독 모두 자신의 정서적 어려움이나 고통 감소, 쾌락을 위하여 물질이나 행위에 의지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그 개념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각 문항의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높아진다고 정의하였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등 휴대전화 의존도에 관한 7개 문항을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4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0.88로 나타났다.

3.2 종속변수 : 아동의 공격성

본 척도는 조봉환·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32]에서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는 아동의 공격성을 알기위한 척도로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등의 6개 문항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하여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4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0.81로 나타났다.

3.3 조절변수 : 부모의 양육태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대와 방임을 측정하는 척도는 허묘연[28]과 김세원[33]의 아동학대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하였고, 총 29문항(방임에 대한 4문항, 학대에 대한 4문항, 감독 3문항, 애정 4문항, 비일관성 3문항, 과잉기대 4문항, 과잉간섭 4문항, 합리적 설명 3문항)을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방임을 제외한 7개의 하위변수는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변수의 정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며, 방임의 문항은 ‘다른 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쓰신다’,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의 4문항으로 각 문항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방임의 수준이 낮아지는 척도이다.

감독, 애정,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 방임, 학대를 측정하는 척도는 허묘연[28]이 제작한 부모양육태도 검사(총 43문항) 문항을 활용하였고, 원 척도의 부와 모 각각에 대한 질문을 부모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한 후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으며, 조사는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직접 설문문항에 응답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으로 이루어졌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0.63~0.84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공격성, 부모의 양육태도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의 양육태도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변수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수를 중심화(Centering)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관련 특성

응답아동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응답아동 총 1,686명 중 남학생은 777명(46.09%), 여학생은 909명(53.91%)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 아동 중 31.26%(527명)가 자신의 성적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으며, 58.96%(994명)가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만족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8.07%(136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 아동이 1.72%(29명)로 나타났다.

이들의 가족구성은 양부모가정(조부모 동거 포함)이 1,542명(94.0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한부모 가정(조부모 동거 포함)이 87명(5.30%), 조부모 가정이 7명(0.43%), 기타 3명(0.18%)로 나타났다. 부모의 최종학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경우 고졸 이하가 637명(40.50%), 전문대졸 이상이 936명(59.50%), 아버지의 경우 고졸이하 844명(46.98%), 전문대졸 이상이 844명(53.02%)으로 나타났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n=1,686)	남학생	777	46.09	
	여학생	909	53.91	
성적 만족도 (n=1,686)	매우 만족	527	31.26	
	만족하는 편	994	58.96	
	만족하지 않는 편	136	8.07	
	전혀 만족하지 않음	29	1.72	
가족구성 (n=1,639)	부모(아버지와 어머니)+자녀	1,437	87.68	
	한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자녀	54	3.29	
	(한)조부모+자녀	7	0.43	
	(한)조부모+부모+자녀	105	6.41	
	(한)조부모+한 부모+자녀	33	2.01	
	기타	3	0.18	
부모 학력	부(n=1,573)	고졸 이하	637	40.50
		전문대졸 이상	936	59.50
	모(n=1,592)	고졸이하	748	46.98
		전문대졸 이상	844	53.02

스마트폰 중독을 살펴보면 최소값이 7점, 최대값이 28점, 평균 23.14점으로(SD=4.39), 응답자들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공격성은 최소값 7점, 최고값 24점, 평균 19.95점으로(SD=3.25) 다소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8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지는데 감독은 평균 4.57점(SD=1.69)으로 나타났으며 애정의 경우 6.64점(SD=2.40), 비밀관성의 경우 평균 7.82점(SD=2.28)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은 평균 9.52점(SD=2.72)과 11.19점(SD=2.77), 합리적 설명은 평균 5.55점(SD=2.00), 마지막으로 방임과 학대의 평균은 각각 6.46점(SD=2.23), 13.37(SD=2.65)점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N=1,686)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스마트폰 중독	7	28	23.14	4.39	
공격성	7	24	19.95	3.25	
양육 태도	감독	3	12	4.57	1.69
	애정	4	16	6.64	2.40
	비밀 관성	3	12	7.82	2.28
	과잉 기대	4	16	9.52	2.72
	과잉 간섭	4	16	11.19	2.77
	합리적 설명	3	12	5.55	2.00
	방임	4	16	6.46	2.23
학대	4	16	13.37	2.65	

2. 집단 간 차이분석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과 공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녀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스마트폰 중독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아동의 성적 만족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수준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자신의 학업성적에 얼마나 만족하느냐는 문항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점수의 평균은 24.21점, '만족하는 편이다'에 응답한 아동의 평균은 22.89점,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에 응답한 아동의 평균은 21.46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아동의 평균은 19.90점으로 자신의 학업성적에 더 만족하는 아동

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자신의 학업성적에 만족하지 않는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구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부모학력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수준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부모의 아동보다 전문대학교 졸업인 부모의 아동이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

표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 (N=1,686)

항목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F (p)	
성별	남자	777	22.96	4.55	-1.51 (.135)	
	여자	909	23.28	4.24		
성적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527	24.21	4.20	24.59 *** (.000)	
	만족하는 편이다	994	22.89	4.19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136	21.46	4.7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9	19.90	6.77		
가족구성	부모(아버지와 어머니)+자녀	1437	23.21	4.38	1.33 (.250)	
	한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자녀	54	22.54	4.11		
	(한)조부모+자녀	7	21.86	4.38		
	(한)조부모+부모+자녀	105	22.99	4.58		
	(한)조부모+한 부모+자녀	33	22.39	4.65		
	기타	3	18.33	3.79		
	부모학력	부	고졸 이하	637		22.67
전문대졸 이상			936	23.51	4.23	
모		고졸 이하	748	22.76	4.50	-3.57 *** (.000)
		전문대졸 이상	844	23.54	4.27	

<0.1 <<0.05 <<<0.0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아동의 공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성별, 성적만족도, 부의 최종학력에 따라 아동의 공격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격성은 여학생이 20.25점(SD=3.21)으로 남학생(19.60점, SD=3.2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이 자신의 학업성적에 대하여 만족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아동의 공격성 평균은 19.71, 전문대 졸업 이상인 아동의 공격성 평균은 20.09점으로 아버지의 최종학력이 높은 아동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공격성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F (p)	
성별	남자	777	19.60	3.26	-4.13*** (.000)	
	여자	909	20.25	3.21		
성적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527	20.91	3.17	30.82*** (.000)	
	만족하는 편이다	994	19.69	3.09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136	18.65	3.46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9	17.72	3.95		
가족성	부모(아버지와 어머니)+자녀	1437	23.21	4.38	1.33 (.250)	
	한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자녀	54	22.54	4.11		
	(한)조부모+자녀	7	21.86	4.38		
	(한)조부모+부모+자녀	105	22.99	4.58		
	(한)조부모+한 부모+자녀	33	22.39	4.65		
	기타	3	18.33	3.79		
부모학력	부	고졸 이하	637	19.71	3.38	-2.57*** (.011)
		전문대졸 이상	936	20.14	3.15	
	모	고졸 이하	748	19.87	3.28	-1.33 (.185)
		전문대졸 이상	844	20.09	3.15	

.<0.1 .<.05 .<.01

3.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공격성의 상관관계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과 공격성, 부모의 양육태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과 공격성($r=0.39***$)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할수록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문제1>의 실증적 검증이 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감독($r=-0.26***$), 애정($r=-0.32***$), 합리적 설명($r=-0.25***$)은 아동의 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잉간섭($r=0.20***$), 학대($r=0.27***$), 방임($r=-0.26***$)은 아동의 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밀관성($r=0.13***$), 과잉기대($r=0.05***$)는 상관관계가 낮지만 아동의 공격성과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많이 가질수록, 합리적인 설명을 해줄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낮게 나타나고, 부모

가 아동에게 과잉간섭할수록, 학대할수록, 방임을 하지 않을수록, 비밀관적인 양육태도와 과잉기대가 심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중 비밀관성($r=0.21***$), 과잉기대($r=0.15***$), 과잉간섭($r=0.23***$), 학대($r=0.25***$), 방임($r=-0.22***$)은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낮은 상관관계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감독($r=-0.22***$), 애정($r=-0.22***$), 합리적 설명($r=-0.18***$)은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부모가 비밀관적인 양육태도와 과잉기대, 과잉간섭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대할수록, 방임의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애정적일수록, 합리적 설명을 해줄수록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낮게 나타남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상관분석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뿐만 아니라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5. 주요 변수의 상관분석 (N=1,686)

	1	2	3	4	5	6	7	8	9	10
1 공격성	1									
2 스마트폰 중독	.39***	1								
3 감독	-.26***	-.22***	1							
4 애정	-.32***	-.22***	-.51***	1						
5 비밀관성	.13***	.21***	.01	-.04	1					
6 과잉기대	.05	.15	.12	.15	.57***	1				
7 과잉간섭	.20***	.23***	.02	-.12	.60***	.64***	1			
8 합리적 설명	-.25***	-.18***	.44***	.65***	.00	.17	-.01	1		
9 방임	-.26***	-.22***	.48***	.62***	-.03	.14	-.06	.53***	1	
10 학대	.27***	.25***	-.17	-.35***	.38***	.30***	.47***	-.23***	-.19	1

.<0.1 .<.05 .<.01

4.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인과관계 사이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스마트폰 중독과 부모의 양육태도, 상호작용(스마트폰중독 편차×감독 편차)변수를 독립변수로, 공격성을 종속변수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1 회귀분석 1단계

먼저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1단계에서는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을 독립변수로, 아동의 공격성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아동의 성별과 성적만족도를 통제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은 공격성에 대해 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수준 9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86$). 이는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격성이 함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표 6.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1단계 (N=1,686)

	B	β	t(p)	R	R ²	F(p)
1 단계	스마트폰중독	.31	.36	15.92*** (.000)	.43	.18 *** (.000)
	성별	.54	.08	3.76*** (.000)		
	성적만족	-.76	-.15	-6.75*** (.000)		

<.01 <.05 <.01

3.2 회귀분석 2단계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에 부모 양육태도의 각 하위요인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아동의 성별, 성적만족도를 통제하였다. 그 결과 2단계의 모든 회귀모형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F=94.80~112.12), 부모의 비일관성과 과잉기대를 추가로 투입한 회귀모형을 제외한 나머지 2단계 회귀모형이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1단계의 회귀 모형보다 아동의 공격성을 1%

에서 5% 추가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단계 회귀모형에서 부모의 감독은 아동의 공격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3%를($t^2=.206, \beta=-.16, p<0.001$), 부모의 애정은 5%를($t^2=.225, \beta=-.22, p<0.001$) 추가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감독과 애정이 아동의 공격성과 음의 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와 부모의 감독이 아동의 공격성 증감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가 아동에 대한 감독 수준이 높아질수록, 아동을 애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표 7.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2단계_1 (N=1,686)

	B	β	t(p)	R	R ²	F(p)
감독	스마트폰중독	.29	.33	16.60*** (.000)	.45	.21 109.23 *** (.000)
	감독	-.45	-.16	-6.93*** (.000)		
	성별	.41	.06	2.88*** (.004)		
	성적만족	-.63	-.13	-5.65*** (.000)		
애정	스마트폰중독	.28	.32	14.49*** (.000)	.48	.23 112.12 *** (.000)
	애정	-.39	-.22	-9.49*** (.000)		
	성별	.46	.07	3.30*** (.001)		
	성적만족	-.49	-.10	-4.29*** (.000)		
비일관성	스마트폰중독	.31	.39	5.71*** (.000)	.43	.18 94.99 *** (.000)
	비일관성	.06	.03	1.25 (.212)		
	성별	.51	.08	3.54*** (.001)		
	성적만족	-.75	-.15	-6.71*** (.000)		
과잉기대	스마트폰중독	.31	.36	15.89*** (.000)	.43	.18 94.80 *** (.000)
	과잉기대	-.04	-.02	-.98 (.329)		
	성별	.57	.09	3.88*** (.000)		
	성적만족	-.76	-.15	-6.71*** (.000)		

<.01 <.05 <.01

부모의 비일관성과 과잉기대는 아동의 공격성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과잉간섭은 총 변량의 1%를 추가적으로 설명해주는 것

으로 나타났고($\beta=0.09, p<0.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 회귀모형은 부모의 과잉간섭과 아동의 공격성이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부모가 아동에게 과도하게 간섭할 경우 아동의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8.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2단계_2 (N=1,686)

		B	β	t(p)	R	R ²	F(p)
과잉간섭	스마트폰중독	.29	.34	14.75*** (.000)	.44	.19	99.71 *** (.000)
	과잉간섭	.15	.09	4.12*** (.000)			
	성별	.44	.07	3.03*** (.002)			
	성적만족	-.74	-.15	-6.59*** (.000)			
합리적설명	스마트폰중독	.29	.34	14.94*** (.000)	.45	.21	109.32 *** (.000)
	합리적 설명	-.38	-.16	-6.95*** (.000)			
	성별	.53	.08	3.76*** (.000)			
	성적만족	-.62	-.13	-5.52*** (.000)			
방입	스마트폰중독	.29	.33	14.70*** (.000)	.45	.21	108.34 *** (.000)
	방입	-.30	-.15	-6.72*** (.000)			
	성별	.52	.08	3.65*** (.001)			
	성적만족	-.57	-.12	-6.72*** (.000)			
학대	스마트폰중독	.28	.33	14.29*** (.000)	.45	.20	107.59 *** (.000)
	학대	.25	.15	6.54*** (.000)			
	성별	.38	.06	2.60*** (.009)			
	성적만족	-.67	-.13	-5.95*** (.000)			

<.01 <(.05 <(.01

부모의 합리적 설명을 추가한 2단계 회귀모형과 부모의 방입이 포함된 2단계 회귀모형에서 부모의 합리적 설명($\beta=-.16, p<0.001$)과 방입($\beta=-.15, p<0.001$)이 각각 총 변량의 3%를 추가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부모가 아동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해줄수록, 방입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학대를 추가한 2단계의 회귀모형

은 1단계의 회귀모형보다 아동의 공격성을 2% 더 설명 해주었으며, 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beta=0.15, p<0.001$). 부모의 학대는 아동의 공격성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부모가 아동을 학대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정리해보면, 부모의 과잉기대를 제외한 나머지 양육태도의 하위유형, 즉 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 방입, 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3 회귀분석 3단계

부모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3단계 회귀모형에는 통제변수인 아동의 성별, 성적만족도와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부모 양육태도의 각 하위유형에 대하여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과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유형을 곱해준 상호작용항을 독립변수에 추가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감독, 애정, 방입만이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과 공격성의 인과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감독의 경우 3단계의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r^2=.210, p<0.001$), 부모의 감독과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을 곱해준 상호작용항의 β 값은 $-0.29 (p<0.001)$ 로 부모의 감독이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더라도 부모의 감독 수준을 높이면 아동의 공격성 증가를 완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 애정도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3단계의 회귀모형이 2단계의 회귀모형에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2=.230$). 3단계에서 추가된 상호작용항(부모 애정×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의 β 값은 $-0.32(p<0.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과 상호작용하여 공격성의 인과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아동의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는 위험을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높임으로써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방임의 경우 회귀모형이 신뢰수준 9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3단계에서의 상호작용항(부모 방임×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은 $\beta = -0.47(p < 0.001)$ 로 부모의 방임이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과 공격성의 인과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높아지면 아동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며, 부모의 방임이 낮을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아동의 부모가 방임의 수준을 낮추면 그 영향력이 스마트폰 중독과 상호작용하여 결국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반면 부모의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과 확대는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비밀관성과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을 곁해준 상호작용항이 독립변수에 추가로 투입된 3단계의 회귀모형에서는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부모의 비밀관적 양육태도, 상호작용항이 아동의 공격성을 18% 설명해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호작용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아동의 공격성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비밀관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키지만, 부모의 비밀관적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아동의 공격성 증가를 완충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과잉기대의 경우 상호작용항(부모 과잉기대×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투입된 3단계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p < 0.001$),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과 공격성의 인과관계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기대 수준에 개입하는 방법으로는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력을 낮출 수 없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과잉간섭과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을 곁한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3단계의 회귀모형도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이 조절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간섭수준을 낮춘다고 해서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력을 낮출 수는 없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표 9.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3단계_1 (N=1,686)

	B	β	t(p)	R	R ²	F(p)
갈등	스마트폰 중독	.41	.48	8.01*** (.000)	.46	.21
	감독	.34	.12	1.12 (.264)		
	스마트폰* 감독	-.04	-.29	-2.68*** (.007)		
	성별	.40	.06	2.80*** (.005)		
	성적만족	-.62	-.12	-5.52*** (.000)		
애정	스마트폰 중독	.42	.49	8.48*** (.000)	.48	.23
	애정	.16	.09	.87 (.387)		
	스마트폰* 애정	-.03	-.32	-3.11*** (.002)		
	성별	.45	.07	3.19*** (.001)		
	성적만족	-.48	-.10	-4.22*** (.000)		
방임	스마트폰 중독	.49	.57	9.71*** (.000)	.46	.21
	방임	.51	.26	2.67** (.008)		
	스마트폰* 방임	-.04	-.44	-4.37*** (.000)		
	성별	.50	.08	3.54*** (.001)		
	성적만족	-.56	-.11	-4.88*** (.000)		

<0.1 <<0.05 <<<0.01

부모의 합리적인 설명도 마찬가지로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합리적인 설명이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력을 완화시키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부모의 확대, 상호작용항, 아동의 성별과 성적만족도가 아동의 공격성을 21% 설명해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호작용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의 수준이 높고, 부모의 확대가 심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공

격성의 증가를 부모의 학대수준의 증감이 완화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표 10.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3단계_2 (N=1,686)

		B	β	t(p)	R	R ²	F(p)
비밀관성	스마트폰 중독	.34	.39	5.71*** (.000)	.43	.19	76.03 *** (.000)
	비밀관성	.20	.09	.83 (.405)			
	스마트폰* 비밀관성	-.01	-.08	-.59 (.553)			
	성별	.51	.08	3.54*** (.000)			
	성적만족	-.76	-.15	-6.74*** (.000)			
과잉기대	스마트폰 중독	.28	.32	4.30*** (.000)	.43	.18	75.89 *** (.000)
	과잉기대	-.15	-.09	-.79 (.431)			
	스마트폰* 과잉기대	.01	.09	.61 (.540)			
	성별	.57	.09	3.88*** (.000)			
	성적만족	-.76	-.15	-6.71*** (.000)			
과잉간섭	스마트폰 중독	.28	.33	4.30*** (.000)	.44	.19	79.73 *** (.000)
	과잉간섭	.13	.08	.76 (.447)			
	스마트폰* 과잉간섭	.00	.02	0.13 (.900)			
	성별	.44	.07	3.04*** (.002)			
	성적만족	-.74	-.15	-6.58*** (.000)			

.<0.1 <0.05 <0.01

표 11.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3단계_3 (N=1,686)

		B	β	t(p)	R	R ²	F(p)
오염자극(합리화)	스마트폰 중독	.32	.37	6.22*** (.000)	.46	.21	87.52 *** (.000)
	합리적 설명	-.21	-.09	-.78 (.434)			
	스마트폰* 합리적 설명	.01	.08	-.67 (.501)			
	성별	.53	.08	3.76*** (.000)			
	성적만족	-.62	-.12	-5.52*** (.000)			
학대	스마트폰 중독	.17	.20	2.16** (.031)	.45	.21	86.59 *** (.000)
	학대	.02	.01	.10 (.922)			
	스마트폰*학대	.01	.22	1.50 (.133)			
	성별	.38	.06	2.66*** (.008)			
	성적만족	-.65	-.13	-5.82*** (.000)			

.<0.1 <0.05 <0.01

V.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였다. 먼저 각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고, 부모의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검증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공격성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 중독의 경우 최소값이 7점, 최대값이 28점, 평균 23.14점으로, 응답자들이 높은 수준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아동의 공격성은 최소값 7점, 최고값 24점, 평균 19.95점으로 다소 높은 공격성을 보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8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지는데 감독은 평균 4.57점으로 나타났으며 애정의 경우 6.64점, 비밀관성의 경우 평균 7.82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은 평균 9.52점과 11.19점, 합리적 설명은 평균 5.55점, 마지막으로 방임과 학대의 평균은 각각 6.46점, 13.37점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인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의 점수가 낮고, 부정적 양육태도인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방임, 학대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맞벌이로 인한 양육시간의 단축, 소자녀 풍조로 인한 여러 사회변화와 함께 사춘기에 들어서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들이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응답한데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영양상태가 좋아져 발육이 빨라짐에 따라 사춘기에 들어서는 시기도 앞당겨졌고, 이제는 초등학교 저학년도 사춘기를 겪기도 한다. 사춘기에 들어서 호르몬의 변화로 심리 내적으로 혼란스러운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응답자의 특성과 주요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이 자신의 학업성적에 만족할수록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부모의 아동보다 전문대학교 졸업인 부모의 아동이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공격성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

이 자신의 학업성적에 대하여 만족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최종학력이 높은 아동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구결과 1>에 대해 검증한 결과, 아동의 공격성과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었다. 먼저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스마트폰 과사용이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 및 분노, 적의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9],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우울, 불안, 충동, 공격성 등의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선행연구[5] 외에도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높아질수록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2][4][6][7].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결국 아동의 공격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각종 사회문제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아동기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연구결과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모 양육태도의 조절효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감독, 애정, 방임이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과 상호작용하여 공격성의 수준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이 부모의 감독, 애정 수준이 높다고 느낄수록, 방임의 수준이 낮다고 느낄수록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공격성의 증가가 완화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 양육태도 중 감독이 높다는 것은 자녀의 학교생활, 방과 후의 생활 등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애정은 부모가 자녀와 친밀하게 지내고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주는 태도를 말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감독과 애정, 즉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보여주었을 때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의 수준이 높아도 공격성은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아동을 방임하지 않는 것, 즉 적절한 칭찬과 관심이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공격성의 증가를 완화시켜주는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친밀하고 합리적인 부모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과사용과

상호작용하면서 공격성을 감소시킨다는 최유미(2014)의 연구결과[9]와 일치했지만, 과잉보호적인 부모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과사용과 상호작용하면서 공격성을 감소시킨다는 결과와는 상치되는 결과였다. 이는 최유미(2013)의 연구에서는 과잉보호적 양육태도를 애정의 수준은 높게, 통제의 수준은 낮게 나타나는 유형으로 지나친 관심과 뒷바라지로 의존성을 유발하는 특징을 가지는 양육태도로 보아, 본 연구의 과잉간섭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9]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낯이 심각해져가는 아동의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원인인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이 필요하며, 공격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므로 스마트폰 예방을 위한 학계의 관심이 요구되며,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섯다운제와 같이 제도적으로도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와 사회복지 실천현장이 협력하여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캠페인 활동을 아동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도 놀 수 있는 문화를 만든다면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 예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공격성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공격성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해준다. 따라서 가정에서 아동 자녀의 공격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자녀에게 적절한 수준의 감독과 애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실천 영역에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가족상담 프로그램과 함께 스마트폰 예방교육을 접목시켜 발전시키는 시도를 할 수 있겠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을 무조건 막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며, 사춘기에 들어서는 아동과 정서적인 교류를 활발히 하여 스마트

폰 중독으로 인한 공격성의 증가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경우 부모와 개인 외의 환경적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개인요인만 살펴본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 또래요인과 같은 다양한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과 공격성에 대하여 살펴보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패널조사를 활용함으로써 자기 보고식 질문지가 가지는 한계를 가지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의 경우 10명 중 6명꼴로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휴대폰을 이용하는 10대의 95%가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조사결과[30]에 따라 휴대폰 의존을 스마트폰 의존으로 간주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는 척도를 이용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서울시, *청소년위기실태조사*, 2013년 1월 7일, 2013.
 [2] 선혁규, *스마트폰 중독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참가 우울, 공격성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3] 스마트폰 중독이 '사이버괴롭힘'부른다, *헤럴드경제*, 2014. 4. 8.
 [4] 신성철, 백석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1호, pp.345-362, 2013.
 [5] 금창민, *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proneness)'과 정신건강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6] 장여옥, 조남억,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지역 청소년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1권, 제2호, pp.137-156, 2013.

[7] 신성철,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 적응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 *아동교육*, 제23권, 제1호, pp.199-214, 2013.
 [8] 남상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과 정서행동 문제와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9] 최유미,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과 공격성에 대한 연구: 부모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0] 미래창조과학부, *2013년 인터넷 중독실태조사*, 2014년 3월 24일.
 [1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12359>
 [12] 이은아, *초등학교용 공격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13] J. L. Aber, J. L. Brown, and S. M. Jones, "Developmental Trajectories toward Violence in Middle childhood: Course, Demographic Differences, and Response to School-based Interven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9, No.2, pp.324-348, 2003.
 [14] 최정아, "초기 청소년기 공격성의 발달적 변화와 가족 영향 요인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2호, pp.294-307, 2014.
 [15]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3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 2014.
 [16] 조유진, "공격성과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의 관계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아동과 권리*, 제15권, 제1호, pp.67-88, 2011.
 [17] 한상훈, 왕소정,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과 공격성에 관련된 조절변수의 효과 검증," *교육융합연구*, 제7권, 제3호, pp.51-72, 2009.
 [18] 권유경, 정소희, "지역사회 SES, 부모양육태도, 아동의 학교적응과 공격성," *사회복지연구*, 제41권, 제3호, pp.379-402, 2010.
 [19] 이영화, 김경연,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지*, 제50권, 제2호, pp.1-10, 2012.

[20] 이주리, “아동의 반응적, 선행적 공격성에 대한 기질과 부모양육태도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8권, 제4호, pp.117-125, 2010.

[21] 박민정, 최보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제4호, pp.95-104, 2004.

[22] 김선아, “아동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내면문제 변화와 초기보호요인(애착, 자아존중, 통제, 양육태도)와의 관계 초4-중2를 중심으로,” 아동복지연구, 제9권, 제1호, pp.39-66, 2011.

[23] 장혜림, 정익중,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40권, pp.33-61, 2013.

[2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09931&cid=51011&categoryId=51011>

[25] 황하성, 손승혜, 최윤정, “이용자 속성 및 기능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5권, 제2호, pp.277-313, 2011.

[26] 강희양, 박창호,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1권, 제2호, pp.563-580, 2012.

[27] 천예빈,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예방에 관한 연구,” 인터넷비즈니스연구, 제14권, 제1호, pp.98-108, 2013.

[28] 허묘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29] 이시형, 김학수, 나은영, *청소년의 휴대전화사용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03.

[30]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3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4

[3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년~2014년 미디어보유와 이용행태 변화*, 2014년 12월 23일

[32] 조봉환, 임경희,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5권, 제4호, pp.729-746, 2003.

[33] 김세원,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저 자 소 개

박 혜 선(Hye-seon Park)

준회원



- 2014년 2월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사)
- 2014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아동복지, 가족복지

김 형 모(Hyoung-mo Kim)

정회원



- 1990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1994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1996년 6월 : University of Minnesota, School of Social Work(M.S.W.)

▪ 2000년 5월 : University of Minnesota, School of Social Work(Ph.D.)

▪ 2001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아동복지, 아동학대